

李退溪의 物格說**

友枝龍太郎*

• 目 次 •

I. 序 論	IV. 退溪의 說
II. 朱子의 說	V. 栗谷의 說
III. 高峯의 說	VI. 結 論

I. 序 論

李退溪(1501~70 <엄밀히 말하면 71.1.3>)는 그가 타계하기 2개월 반 전에 그의 物格說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奇高峯(1527~72)에게 써 보냈다. 『그것은 그 이전에 物格說에 대하여 고봉과 의견이 엇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퇴계는 四端七情에 대해서도 59세 이후 고봉과의 사이에 논쟁을 계속하여 66세에 일단 結着을 보지만, 고봉의 의견은 퇴계 68세에 天子에 獻上한 『聖學十圖』의 제8圖 『心은 性과 情을 統御하는 圖』안에 지양된 모습으로 표시되어, 퇴계 자신의 정밀한 性情論을 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¹⁾ 物格說에 관한 퇴계의 개정도 그 근원은 69·70세경의 고봉의 物格說에 촉발된 것이었으나, 이 역시 高峯說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퇴계의 독자적 인식

* 전 廣島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4호(1984) 게재논문

1) 友枝龍太郎, 李退溪の四七論辯と理動說 『東アジアの思想と文化』 pp.23~24. 한국연구원, 동경, 1980.

론이 전개되어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朱子 인식론의 구성을 회고해 가면서 퇴계의 物格說을 奇高峯이나 李栗谷(1536~84)의 설과 대비시켜 논함으로써 退溪說의 특질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朱子の 說

退溪·高峯·栗谷의 논의의 기초가 된 것은 朱子の 『大學章句』 『大學或問』에 있는 『格物』과 『物格』說이다. 朱子는 『大學』의 『格物』에 대하여 章句에서는

『格』은 이르다(至)를 말하고 『物』은 事와 동일하며 『格物』은 [내가] 事物의 理致에 窮至하여 그 極處에 도달할 것을 바라고 있다.²⁾

라고 하였으며, 或問에서는

『格』은 極至한다는 뜻으로서, [書經舜典]의 『文祖에 이르(格)다』의 『格』과 마찬가지로. [格物이란] 사물의 理에 窮至하여 그 극에 도달함을 의미하고 있다.³⁾

고 하였다. 따라서 『格物』이란 인식주체인 나의 『心知』가 인식 대상인 『物理』을 窮明하여 그 極處 極點에 도달함을 의미하며, 『나(我)』로부터 『그(彼)』에게 도달한다는 점에 있어 退溪·高峯·栗谷 사이에는 異同이었다.

2) 『大學章句』, 1978, 臺北 藝文印書館 p.2a 『格, 至也. 物, 獨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3) 『大學或問大全』, 1691, 京都, 洛陽書肆, p.21b 『格者, 極至之謂, 如格於文祖之格. 言窮之而其極也』

그러나 『物格』의 의의에 대해서는 퇴계 자신의 해석에도 전후의 異同 이 있고, 또 퇴계와 고봉·율곡 사이에도 異同이 있었다. 이같은 異同을 생기게 한 원인은 朱子가 『大學或問』에서

物格이란 사물의 이치가 각기 그 極處에 이르게 되어 남김이 없다는 뜻이다.⁴⁾

고 해석한 점에 있다. 『物格』에 있어서, 『物』 곧 『사물의 理』가 주어이고 『格』 곧 『이르다(至)』가 술어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이르다』는 사물의 理 자체가 그 極處에 도달하는 것이지 『나』의 心知가 『그』 사물의 理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퇴계는 자기의 개정 전의 物格說에 대하여 당초에는

物格의 『格』,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는 『到』를 모두 『내가(己) 이르다(格), 내가(己) 도달하다』라고 보고 있었다.⁵⁾

고 말하고 있다. 이 언저리에 퇴계와 고봉의 物格說의 相違가 이미 생기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朱子는 『大學』의 『格物』의 項에서 주체인 『내(我)』가 사물의 도리를 궁지하여, 그 극에 이르름(至)을 說하였고 또 『物格』의 項에서는, 物理 자체가 그 극에 도달한다는 것을 說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心知로부터 物理에로의 작용은 있어도 物理로부터 心知에로의 작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朱子의 『大學』 格物致知章의 補傳에는, 靈妙한 사람의 마음에는 知 곧 인식 능력이 있고, 또 천하의 사물에는 각기의 理法條理가 있다고 되어 있어, 우선 心知와 物理의 對峙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心知와

4) Ibid, 22b 『物格者, 事物之理, 各有以詣其極而無餘之謂也』

5) 『陶山全書』, 1980, 경기도 성남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II, p.114. 『退溪全書』, 1971,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I, p.464. 『高峯全集』, 1976,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239. 『硬把物格之格, 無不到之到, 皆作己格己到看』.

物理의 통일 즉, 主와 客의 豁然貫通·融釋脫落을 구하고 있다.⁶⁾ 格物이 心知로부터 物理에로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物格은 物理로부터 心知에로의 작용이 아니겠는가. 他界 2개월반 전의 퇴계의 物格說 개정은 朱子나 고봉이나 모두 없었던 이 언저리의 논리를 명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Ⅲ. 高峯의 說

고봉의 物格說에서 상세한 진술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는 『釋物格』의 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技巧을 추궁하는 그 포인트는 物에 雕刻하는데 있다.	— 致巧在雕物
物이 雕刻되면 技巧은 거기서 발휘된다.	— 物雕巧乃宣
物の 雕刻이 그 극치에 이르면	— 物之雕詣極
자기의 기교 또한 거기에 따라 완벽해진다.	— 我巧亦隨全 ⁷⁾

라고. 여기서 致巧는 致知, 雕物은 格物, 物雕는 物格, 巧宣은 知至에 해당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시의 轉結兩句는 『大學或問』의

物에 있는 理가 이미 그 극에 이르러(詣) 남김이 없다면, 나에게 있는 知 또한 物理의 이르름(詣)에 따라 十全이 된다.⁸⁾

6) 『大學章句』, pp.6ab 『蓋人心之靈, 草不有知, 而天下之物, 草不有理. 惟於理有未窮, 故其如有不盡也. 是以大學始教, 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 草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象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

7) 『高峯全集』, p.374.

8) 『大學或問大全』, p.22b 『理之在物者, 既詣其極而無餘, 則知之在我者, 亦隨所詣而, 無亦不盡矣.』

고 한 표현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고봉은 틀림없이 雕刻物 자체가 그 표현의 극치에 도달한다는 것, 즉 物理 자체가 그 극에 도달하여 남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物理가 心知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퇴계는 고봉의 이 시에 대하여 시 二수를 지어 반론하였다. 즉

사람의 기교가 物에 雕刻하는 것이지	- 人巧能雕物
조각물이 어찌 사람의 기교를 가능하게 할꼬	- 雕寧巧得人
사람의 心知가 능히 物理에 궁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 謂知能格物
譬喩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닐까	- 取譬想非倫 ⁹⁾

고. 이것은 앞의 高峯詩의 起句 承句에 대한 비판으로 心知가 物理에 窮至할 수 있다는 것을 說하고, 조각물보다 오히려 조각하는 주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퇴계는

조각하여 능히 그 극치에 이르(詣 곧 至) 수 있다고 하지만	- 雕而能詣極
이르(詣 곧 至)는 것은 어찌 사람이 아니라	- 詣者豈非人
物이 조각하여 능히 이르(詣 곧 至) 수 있다고 한다면	- 謂物雕能詣
그 言法이 어찌 크게 잘못됐다 하지 않겠는가	- 言何太不倫 ¹⁰⁾

라고 비판하였는 바, 이 시는 앞의 고봉 시의 轉句, 結句에 대한 비판으로서, 物理가 그 극에 이르(至)다는 것이 적당치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봉은 다시 시 三수를 지어 반론하였다. 그 하나에

9) 『高峯全集』, p.374. 『陶山全書』, I, p.147. 『退溪全書』, I, p.154.
10) 『高峯全集』, p.374. 『陶山全書』, I, p.147. 『退溪全書』, I, p.154.

雕刻物 자체가 그 극치에 이르는 것이지	- 其雕詣極處
이르는(詣) 것은 사람이 아니다.	- 詣者豈伊人
물에 조각하여 그 조각이 극치에 이른다.(詣)	- 雕物而雕詣
이 言法이야말로 바로 논리에 맞는다.	- 斯言曾有倫 ¹¹⁾

고 하였는데, 조각물 자체가 그 극치에 이른다는 것, 즉 物理가 그 極處에 도달한다는 것의 부당성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것은 퇴계의 앞의 二詩에 대해 답한 것이다. 그리고 또 其二에

사람이 능히 그 物의 理에 格(極)했을 때	- 人能格夫物
物의 理는 사람에게 잘 작용을 한다.	- 物理妙于人
안팎과 앞뒤가 있되	- 內外兼先後
공부의 순서는 잘못되지 않는다.	- 工程不失倫 ¹²⁾

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格物」이 「나(我)」로부터 「그(彼)」의 物理로 窮至하는데 반하여 「物格」은 物理의 「나(我)」에 대한 妙用이라는 것을 밝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봉은 여기서도 「物理格于人」(物理가 사람한테로 《와서》 이른다)고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物理來格說은 고봉이 취한 바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其三에 가서 고봉은

참고로 朱子의 말을 보면	- 嘗閱晦菴語
理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고 있다.	- 理無不到云
이것을 大學의 物格의 解에서 구해보면	- 求之物格訓
나의 의견이 근거 없는 문장은 아니다.	- 愚見豈空文 ¹³⁾

고 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고봉은 이 「理無不到」의 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고봉은

11) 『高峯全集』, p.374.

12) 『高峯全集』, p.374.

13) 『高峯全集』, p.374.

物格에 대하여 朱子 戊申 封事の 『理到의 言』, [通書, 誠幾德章의] 『발동하는 것이 미미하여 볼 수가 없다. 가득함(充)이 두루(周)하여 窮至되지 않는 것이 神의 의미다』고 하는 條下, 性理大全註의 『그것(神)이 居 하는데 따라 理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과, 大學或問大全註의 『조금도 도달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¹⁴⁾을 인용하고, 다시 말을 이어, 이들 어구를 기준으로 하여 거듭해서 格物의 解를 추구해 보면, 『理가 그 極處에 이른다(詣)』거나 『極處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거나 하는데 대하여 나의 생각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물론 안 될 것은 없다.¹⁵⁾

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봉의 物格 해석이 『사물의 理가 그 極處 極點에 도달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고봉이 인용한 『그것(神)이 居하는데 따라 理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到』자가 과연 理가 그 極處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매우 의문이고, 오히려 이 『到』자는 神明이 寓居하는데 따라 理가 來到하고 있다고 풀어야 할 것이다. 만일 고봉의 『理到』를 理가 그 極處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봉에게 있는 것은 상향적인 理 뿐이고 하향적인 理는 없다. 하향적인 理를 고봉에게서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物の 理가 사람에게 妙한 작용을 한다』고 한 앞의 제二수 중의 一句 뿐이다. 이리하여 고봉은 『朱子文集』44, 蔡季通에게 보낸 서한 제12書의

후련하고 산뜻하게 矛盾撞着없이 了解하지 않는다면 物格의 효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¹⁶⁾

14) 『高峯全集』, p.133. 『格物 戊申封事 『理到之言』 發微不可見條下, 通書註, 『隨其所寓, 而理無不到。』大學或問註, 『無一毫不到處』以此者言句, 反覆求之, 則『理詣其極』及『極處無不到』若, 如鄙戀釋之, 固無不可也。

15) 『高峯全集』, p.133. 『格物 戊申封事 『理到之言』 發微不可見條下, 通書註, 『隨其所寓, 而理無不到。』大學或問註, 『無一毫不到處』以此者言句, 反覆求之, 則『理詣其極』及『極處無不到』若, 如鄙戀釋之, 固無不可也。

16) Ibid 『朱子大全 四十四卷, 答蔡季通曰, 『須看得玲瓏透脫, 不相妨礙, 方是物格

고 한 말을 인용하여, 物格을 主客合一·融釋脫落의 境位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나 고봉에게는 퇴계와 같은 物理의 빛(光)의 도래는 없다. 또한 이들 退高應答의 시는 대략 己巳(1569)로부터 庚午(1570) 사이의 것이라 볼 수 있다.

IV. 退溪의 說

上述한 고봉의 理到說은 金就礪(자는 而精, 호는 靜菴)를 거쳐 퇴계에게 전해진 듯하며, 퇴계가 이를 받아 고봉에게 자신의 物格說 수정을 알린 것은 庚午 70세의 陽月(10월) 15일이었다. 陶山全書II 『24, 答奇明彦』 114페이지 및 高峯全集 『往復書3』 239페이지에는 상기 日付가 있으나 『退溪全書』I 『18, 答奇明彦』 464페이지에는 이 日付가 없다. 또 柳西厓撰의 退溪年譜¹⁷⁾에는 이것이 11월 己卯 15일이라고 있는데 이는 金鶴峯의 퇴계선생 언행록의 기술¹⁸⁾과 거의 일치한다.

퇴계는 우선

『物이 이른(格)다.』, 『物理의 極處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貴說을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왜 지금까지의 誤說을 고집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다만 朱子の 『理에는 情意가 없고, 計度이 없으며, 조작이 없다』고 한 說을 지키는 것을 알 뿐으로, 내(我)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할 수 있는 것이지 理 자체가 그 極處에 이를(至)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物이 이른(格)다』의 『格』과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의 『到』를 완고하게 모두 『자기가 이른(格)다』 『자기가 도달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서울에서 『理가 도달한다』고 하는 설을 提諭받았고 또한 나도 아무리 거듭거듭 생각해

之驗也。玲瓏透脫之云，正與融釋脫落之意無異，幸更留心玩索何如。

17) 『退溪全書』 III, p.595, IV, p.151

18) 『鶴峯全集』, 1972,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259.

보았지만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¹⁹⁾
 라고 하였는데, 이는 퇴계의 『物格』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格物』의
 해석과 구별없이 『我』, 『己』가 物理의 極處에 도달하는 것, 즉 인식주
 체인 心知가 인식대상인 物理에 窮到하여 그 極處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近者, 金而精으로부터 左右(고봉을 지칭)의 생각의 출처가 된 朱先生의
 말과 『理到』의 부분 3·4條를 傳示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 견해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²⁰⁾

라고 하였는 바, 전술한 『理到』라는 말의 출처의 明示가 직접 고봉한테
 서가 아니라 金而精(名은 就礪, 號는 潛齋 또는 整庵, 1525년생)으로
 부터 전해졌다는 것과 여기서 自說의 오류를 깨달았다는 것을 퇴계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퇴계는

여기서 자기의 舊見을 모두 씻어버리고 마음을 허하게 하고 意를 자세
 하게 하여 이 理가 어찌하여 스스로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어디
 에 있는가 하고 우선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大學或問』 안에 보이는
 補傳 제5장의 주선생의 설이 이 『理가 스스로 도달한다』는 의의를 분명
 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일찍 나는 이 대목을 늘 玩味해 오면서도 『理가
 스스로 도달한다』고 하는 점에 이해가 미치지 못했습니다.²¹⁾

-
- 19) 『陶山全書』, II, p.114. 『退溪全書』, I, p.464. 『高峯全集』, p.239. 『『格物』
 與『物理之極處無不到』之說, 謹聞命矣. 前此, 滉所以堅執誤說者, 只知守朱子
 『理無情意, 無計度, 無造作』之說, 以爲我可以窮到物理極處, 理豈能自至於極處.
 故硬把『物格』之格, 『無不到』之到, 皆作己格已到看. 往往都中, 雖蒙堤諭理到之
 說, 亦嘗反復紬思, 猶未解惑.』
- 20) Ibid. 『近金而精傳示左右所考出朱先生語及理到處三四條, 然後乃始想怕己見之差
 誤.』
- 21) Ibid. 『於是盡底裏濯去舊見, 處心細意, 先尋箇理所以能自到子如何, 蓋先生說見
 於補之幸或問中者, 闡發此義, 如日星之明, 顧滉雖常有味其言, 而不能會通於此
 耳.』

고 말하여, 지금까지의 이해 不充分을 자기반성하고, 다시 이어 『大學
或問』 안의 구절을 인용하여,

『或問』의 朱子の 설에서는 사람들이 학문하는 방법은 心과 理의 둘에
대해서이다. 心은 사람의 一身의 主가 돼 있으나 그 虛明靈妙함은 천하
의 理를 管轄하기에 충분하며 천하의 理는 흩어져(散) 만물에 具在하나
그 작용의 미묘함은 실로 한사람의 心 바로 그것이다. 당초부터 心은
內於精이고 理는 外於粗라 하여 進論할 수는 없는 바이라고 말하고 있
다.²²⁾

고 논단하고 또 이를 보강하려는 듯이 『或問大全』 所引의 『朱子語類』 18
呂壽의 기록을 제시하여,

어떤 사람의 질문: 理의 작용이 미묘한 것은 心의 작용입니까, 어떻습
니까?

朱子の 答: 理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다. 어찌하여 心의 작용이라고 다
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心의 본체는 이 理를 具有하고 있고, 理는
어떤 곳에도 갖추지 않는 곳이 없으며, 거기에 理가 존재하지 않는
(事)物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理의 작용은 실로 사람의 心과 다름이
없다. 생각컨대 理는 (事)物에 존재하나 그 작용은 실로 心에 존재하는
것이다.²³⁾

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心과 物理의 관계를 車에 비유해 보면, 心은
車軸, 物理은 外輪이라고나 할 수 있겠고, 外輪의 작용이 항상 車軸의
작용과 연계되는 것과 닮았다. 하여튼 퇴계는 여기서 자기의 『理의 작
용』을 설명하는 轉機를 朱子の 말에서 구했다고 해도 좋다.

22) Ibid. 『其說曰, 人之所以爲學, 心與理而已. 心雖主乎一身. 而其體之虛靈, 足以
管乎天下之理. 理雖散在萬物, 而其用之微妙, 實不外一人之心, 初不可以內外精
粗而論也.』

23) Ibid. 『退溪全書』 I, p.465. 『其小註. 或問, 用之微妙, 是心之用否, 朱子曰,
理必有用, 何必又說是心之用乎. 心之體, 具乎是理, 理則無所不該, 而無一物之不
在. 然其用實不外乎人心. 蓋理雖在物, 而用實在心也.』

이리하여 퇴계는

만일 理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고 사람의 心을 기다려서 작용한다고 하면 理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²⁴⁾

고 설명하고, 또

理의 작용은 사람의 心의 작용에 다름 아니나 理가 어떻게 하여 精妙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실로 理가 발현하는 것이 사람의 心이 그 理에 窮至하는 그대로(발현하는 理가) 어디든지 到盡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²⁵⁾

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理의 발현과 到盡』은 理 자체가 그 極處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理의 『發現—顯行—到來』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理의 『發現—顯行—到來』는 기실 사물의 理에 窮到하여 그 極處에 이르는 『格物』 뒤에 저절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퇴계는 이 뒤에 『다만 자기의 『格物』이 충분치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나 理 자체가 충분히 도래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心知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하는 것이 『格物』이고, 이는 物理의 極處에의 上向途程이다. 그리고 이 上向途程의 窮極處, 거기에 발현하는 理가 우리의 心知에 도래하는 것이 『格物』인 것이다. 『格』이라는 자는 『格于文祖』(堯의 始祖의 廟에 堯가 이른다)의 경우는 『至·到』의 뜻이나, 『神之格思』(神이 다가온다)의 경우의 『格』자는 『오다(來)』가

24) Ibid. 『其曰理在萬物，而其用實不外一人之心，則疑若，不能自用，必有待人心，似不可爲自到爲言。』

25) Ibid. 『然而又曰理必有用，何必又說是心之用乎，則其用雖不外乎人心，而其所以爲用之妙，實足理之發見者，隨人心所至，而無所不到，無所不盡，但恐吾之格物有未至，不患理不能自到也。』

된다. 일본어에도 『이르다(到)』라는 말이 『내게서 그에게 이르다』, 『그에게서 내게 이르다』를 모두 『이르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후자는 『오다(來)』의 의미인 것과 같다. 『格物』의 『格』을 『窮至』로 풀고 『物格』의 『格』을 『來到』로 퇴계가 풀고 있었다면 格物은 나의 心知로부터 物理에의 上向途程이 되고, 物格은 그 物理로부터 나의 心知에로의 下向途程이 되며, 大學 8조목 안의 『誠意→致知→格物·物格→知至→意誠』은 格物과 物格 대목에서 U턴하게 된다. 우리가 사물의 理에 窮到하여 그 極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窮至라는 自力은 전환하여 他力이 되고, 物理의 極處가 내 心知에 도래하게 된다. 格物·物格은 自力으로부터 他力에의 전환점인 것이다.

일찍 퇴계는 고봉과의 사단칠정 논쟁에서 60세일 때 『리가 움직여 氣가 이를 따른다(隨)』, 『氣가 움직여 리가 이를 탄다(乘)』고 말하였으며, 또 61세일 때, 鄭子中에게 보낸 書翰에서 『리가 움직일 때는 氣는 이를 따라(隨) 생기고, 氣가 움직일 경우는 리는 거기에 따라(隨)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²⁶⁾ 이 理動說은 物理의 도래를 설명하는 데 이르러 완성의 경지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퇴계는 朱子の 格物과 物格에 대하여,

그렇게 보면 朱子가 『格物』을 말할 경우 물론 『내(我)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허나 그가 『物格』을 말한다면 『物理의 極處가 나의 窮한 바에 따라 도래하지 않음이 없다』고 어찌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⁷⁾

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格物』의 해석은 종래와 같고 변경은 없다. 다만 『物格』의 해석에 이어 『物理의 極處』가 나의 窮한 바에 따라 그 極

26) 友枝龍太郎, 『韓國に於る朱子學受容の過程』, 1981, 西南학원대학 『文理論集』 21권 2호所收, 참조.

27) 『陶山全書』, II, p.114, 『退溪全集』, p.239, 『然則方其言物格也, 則固是言我窮至物理之極處. 及其言物格也, 則固是言我窮至物理之極處. 及其言物格也, 則豈不可謂物理之極處, 隨吾窮而無不到乎』.

處에 도착하지 않음이 없다』고 과연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동어 반복으로서 뜻이 없다. 역시 『物理의 極處가 도래하지 않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퇴계는 마지막 맺음에서 말하기를, 이로서 이해가 됐다…… 마음의 작용도 없고 조성하는 작용도 없는 것은 이 理의 본체이고, 그 본체가 寓居하는 대로 발현하여 도래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이 理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다만 理의 본체가 무위한 점만을 보고, 理의 묘한 작용이 잘 顯現 유행하는 점을 깨닫지 못하여 理를 완전한 死物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도를 떠나기를 얼마나 멀리 했던고²⁸⁾

라고 했다. 위 글 가운데의 원문 『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의 『到』도 이미 譯出한 바와 같이 『來到한다』의 뜻이지 『리가 그 極處에 이르다(到)』의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은 후반에서 『理의 묘한 작용의 顯現流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상 요컨대 퇴계에 있어서는 格物은 우리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하는 것이고 物格은 우리가 窮至하는 대로 物理의 極處가 우리에게로 도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格物과 物格이 上向途程에서 下向途程으로 U턴하는 場이고, 주관인 自力에서 객관인 他力에로의 전환점이며, 또 心知와 物理의 대립의 융화에 의해 주관과 객관과의 합일이 생기는 境位라는 점이었다.

이 퇴계의 物格釋에 대하여 고봉은 일단 찬의를 표하면서도,

도리가 자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缺陷이 있다²⁹⁾고 비판해 왔다. 이는 庚午(1570)11월 15일의 일이었다. 고봉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物理가 그 極處에 도달하는 것이 物格이고 그것은 雕像이 그 極處에 이르(詣)는 것과 동일하며, 거기에는 雕像의 자립존재와도 닮은 物

28) Ibid. 『是知無情意造作者, 此理本然之體也, 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 此理至神用也. 而也, 但有見本體之無爲, 而不知妙用之能顯行, 殆若認理爲死物. 其去道不亦遠甚矣乎.』

29) 『高峯全集』, p.244. 『但細觀其間, 恐有道理不自在之累. 未知如何. 伏希鑑諒.』

리의 자립존재가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봉은, 物理의 極處가 그대로 나의 心知에 來到한다고 설명하는 퇴계의 物格釋을 理의 자립존재의 상실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퇴계는 당초에 고봉의 의견에 촉발되어 자기의 物格說을 수정했던 것이나 그와 더불어 고봉과는 상이한 퇴계 독자의 인식론을 전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栗谷의 說

퇴계 작고 후 5년, 고봉 작고 후 3년, 율곡은 40세 (1575)일 때 聖學輯要를 編纂하였는 바, 그는 그 統說 제1에서 大學章句의 3綱領 8條目 부분을 인용하고 朱子の 註 아래에 割註하여

格字에는 『窮』과 『至』의 두 의미가 있다. 格物의 格에는 窮의 意義가 많으나 物格의 格은 다만 至字의 意義가 있을 뿐이다.³⁰⁾

고 하였다. 이 『窮』과 『至』의 二義를 『格』자가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퇴계가 이미 鄭子中에게 보낸 서한³¹⁾에서 말하고 있으나 율곡의 이 해석은 格物이 事物의 理에 窮至하는 것이고 物格은 物理의 極處에 이르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朱子の 註인

物理의 極處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³²⁾

고 한 구 아래에 割註하여,

30) 『栗谷全書』, 1971,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I, p.425, 『格字有窮至兩意. 格物之格, 窮字意多, 物格之格, 只有至字之意.』

31) 『陶山全書』 II, p.366, 『退溪全書』 II, p.37.

32) 『栗谷全書』 I, p.425, 『物理之極處無不到也. 此句與不句對說, 故文藝如此, 其意則物理無不到極處云爾.』

此句는 下句인 『吾心の 아(知)는 바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일은 없다』고 한 것과 대구로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文勢는 이와 같다. 그 의의는 『物理가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을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일 따름이다.³³⁾

고 한 것은 율곡의 物格解가 朱註를 바탕으로 『物理가 그 자체의 極處에 도착한다』는 것을 言明한 것이다. 이리하여 율곡은 다시 朱子の 註인

吾心の 아는 바가 충분하지 않은 일은 없다.³⁴⁾

고 한 句 아래에 割註하여,

『物格과 知至는 한가지 일에 불과하다. 物理를 기준으로하여 말할 경우에는 物이 이른(格)다』 하는 것이고 사물의 理가 각각 그 極處에 이르는(詣)것을 의미하고 있다. 吾心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경우에는, 『知가 이른(至)다』하는 것으로서 吾心이 이르는(詣) 곳 그대로 충분하게 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³⁵⁾

고 하였다. 율곡의 物格說이 朱子の 『大學或問』의 說을 딛고 또 고봉에게 찬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다시 율곡의 語錄을 훑어보면,

格物이라는 것은 사람이 物理를 窮察하여 이것을 막다른 곳으로 이르게 (至)하는 일이고, 物格이라는 것은 物理가 이미 막다른 곳에 이르러 다시 더 窮至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이룸이다.³⁶⁾

33) 上 同

34) Ibid. 『吾心之所知無不盡也……物格知至只是一事. 以物理言之, 則謂之知物格, 謂事物之理, 各詣其極也. 以吾心言之, 則謂之知至, 謂吾心隨所詣而無不盡也.』

35) 上 同

36) 『栗谷全書』II, p.267, 『格物云者, 人窮物之理, 而使之至於盡處也. 物格云者, 物之理, 已至於盡處, 更無可窮之餘地也……至有物理來至吾心之說, 殊不可曉.』

고 하였는데, 이것은 율곡의 格物, 物格의 解의 결론이다. 따라서 율곡에게는 物理가 도래한다는 說은 없으며, 前文에 이어

物理가 吾心에 來到한다는 說은 특히 이해하기 힘들다³⁷⁾

고 한 것은 퇴계의 物理來到說에 대한 율곡의 반론인 것이다.

VI. 結 論

이상 物格說에 대하여 퇴계와 高峰의 異同을 살피고 또 後出인 율곡의 說에 접근해 보았다. 퇴계는 당초 格物·物格의 解에 대해서도 우리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物格에 대하여 고봉의 『物理가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설에 영향을 받아 타계하기 2개월반 전에 종래의 自說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새로운 物格說은 고봉의 설과도 다르고, 그것은 『物の 理가 나의 心知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格物을 인식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에로의 上向途程이라고 한다면 物格은 인식대상으로부터 인식주체로의 下向途程이다. 그리고 또 格物·物格은 自力에서 他力에의 자각의 전환점이고, 여기서 心知와 物理의 대립은 통일되며, 融釋脫落·豁然貫通의 경위가 출현하게 된다. 퇴계의 物格解는 朱子·高峰·栗谷의 說에서 진일보하여 그의 독자적 입장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物理來到의 物格說은 그 뒤 丁愚潭(1625~1706)에게 계승되어

大體 『格物』이라는 것은 吾心의 知로서 彼物의 理를 格하는 것으로서 物과 나(我) 사이에는 역시 간격이 있다. 『物·格』 뒤에는 物理의 極處가 昭昭然하게 나의 胸中에 도래하여 物과 나는 하나가 된다. 따라서 物格과 知至는 동시의 일에 불과하며, 物은 心에 格하고(이르고) 知는 物에 이른다.(至)³⁸⁾

37) 上 同

고 說하게 하였으며, 또 일본에 있어서 楠本碩水(1832~1916)가 『至』라는 자는 工夫習練에 속하고, 『到』라는 자는 功能效驗에 속한다. 理가 도래하는 것은 功夫習練의 이르름(至)이다. 때문에 『物格이라는 것은 物理의 極處가 도래하지 않음이 없는 것, 知至라는 것은 吾心의 아는 바가 막다른 데까지 到盡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생각컨대, 『至』라는 것은 我가 彼에게로 가는 것이고 『到』라는 것은 彼가 我에게로 오는 것이다.³⁹⁾

고 한 것은 분명히 퇴계의 설을 이은 것이다.

38) 裴宗鎬編, 『한국유학자료집(상)』, 『患潭集』, 1980, 서울 연세대학교, p.640, 『夫格物云者, 以吾心之知, 格彼物之理, 物我猶有間, 而物格之後, 則物理之極處, 昭昭然盡到我胸中物.』

39) 岡田武彦·荒木見悟編, 『楠本端山·硬水全集』 『硬水先生遺書』, 1980, 福岡市, 葦書房一 p.249, 『至字屬工夫, 到字屬功效. 理之到則工夫之至也. 故曰物格者, 物理之極處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也, 蓋至者, 我往于彼也. 到者, 彼來于我也.』